

4. 치은연하치태세균의 분포에 있어서, 구균은 실험군에서 유의성있게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유의성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운동성 세균과 나선균은 실험군에서 매주 유의성있는 감소를 보였고, 대조군은 운동성 세균의 경우 2, 5주($P<0.01$), 나선균은 3주($P<0.05$), 5주($P<0.01$)에서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불규칙한 변화양상을 보였다.

● Electronic Probe와 Manual Probe에 의한 치은 열구 및 치주낭 측정의 재현성에 관한 연구

박광민 · 이재현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저자는 electronic probe와 manual probe를 사용한 치주낭 측정치의 재현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전신적으로 건강하고 최근 6개월간 치주치료 경험이 없는 11명의 성인성 치주염 환자를 대상으로 선행적 처치를 완료한 후 두 검사자가 1주일 간격으로 치주낭 측정을 시행하여 얻은 자료를 통계 처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검사자 B의 2차 측정치를 제외하고 두 검사자 모두 manual probe를 사용하여 얻은 치주낭 측정치의 평균이 electronic probe를 사용하여 얻은 치주낭 측정치의 평균보다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2. Electronic probe를 사용하여 얻은 치주낭 측정치의 검사자내 일치율은 두 검사자 모두 manual probe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1$).
3. Electronic probe를 사용하여 얻은 치주낭 측정치의 검사자간 일치율은 manual probe를 사용한 경우보다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4. Electronic probe와 manual probe를 사용한 경우 치주낭 측정치의 검사자내 일치율은 두 검사자 모두 검사자간 일치율보다 높았으며 유의성이 있었다($P<0.05$).

● 치간이개가 치주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양재 · 권영혁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속병원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중에서 초진시 치간이개가 존재하는 71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치간이개가 관찰되는 부위를 실험군으로 설정하고 대조군은 동약 반대측 혹은 실험군에 가장 인접한 정상 접촉부위를 가진 자연치를 설정하여 개개 치아의 치주낭 깊이, 치은 퇴축도, 치은열구출혈지수, 치태지수, 치은염지수 및 치조골 소실도를 비교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112개의 치간이개 부위중 치아별 빈도는 하악 중절치 사이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상하악 공히 견치와 소구치사이에서 발현빈도가 높았다(상악 14.29%, 하악 11.61%).
2. 치간이개의 정도를 측정해 본 결과 50-100 μ 이 44.64%로 가장 많았으며, 110-150 μ 이 28.57%,

150 μ 이상이 26.79%의 분포를 보였다.

3. 치간이개가 존재하는 부위의 치주낭 깊이, 치은열구출혈지수, 치태지수, 치은염지수, 치조골 소실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치은퇴축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각 실험군간의 임상지수의 비교에서, 치주낭 깊이와 치조골 소실도는 치간이개정도가 증가할 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나($P < 0.01$, $P < 0.01$), 치은열구출혈지수, 치태지수, 치은염지수는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 전체 실험군에서 각 임상지수간의 상관관계는 치은퇴축도와 치은열구출혈지수와의 관계를 제외하고는 각각 비례하는 경향이었다($P < 0.05$, $P < 0.01$).

● 유리치은이식술의 생체계측학적 평가에 대한 임상적 연구

박원배 · 이만섭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에 내원한 환자중 부착치은과 각화치은이 협소하고 치은이 퇴축되어 있으며 근부착이 높은 환자 총 58명 해당치아 78개를 대상으로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유리치은이식편의 두께는 0.5-1.24mm의 부분총과 1.5-2.0mm의 전총 두 군으로 하여 골막수용부에 이식하였다. 이식술 후 1일, 2일, 1주, 2주, 4주, 2개월 4개월 그리고 6개월에 각각 내원시켰다. 각 내원 때마다 임상적 치유과정, 여러 임상지수 그리고 이식편 수축율을 조사하였으며, 부분총이식술과 전총이식술의 상호관계를 비교평가 하였다. 술후 6개월 간의 종적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상피박리와 이식편생착은 술후 1주에 마무리되었으며, 이식편 색조차이와 표면구조는 술후 4주에 회복되었다.
2. 이식편동요도는 부착치은의 폭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부분총이식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치근피개를 목적으로 한 경우의 25%에서만 발견되었다.
3. 각화치은과 부착치은은 술전과 술후 6개월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P < 0.01$), 치주낭깊이, 치은퇴축양 및 부착부소실은 유의성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부분총이식편과 전총이식편의 수축은 술후 2주와 4주에 통계학적 유의성 있는 조직변화를 보였으며($P < 0.01$), 두 군간의 차이는 없었다.
5. 부위별 이식편 수축율의 비교에서 상하악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단지 구치부군(32.2%)이 전치부군(18.2%)에 비해 높은 이식편수축율을 보였다.

prob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using manual probe($P < 0.05$).

4. The proportions of intra-examiner agreement for pocket depth measurements using electronic probe and manual prob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inter-examiner agreement for pocket depth measurement in both examiners($P < 0.05$).

Study of the influence of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 in periodontal disease

Yang Jae Park, Young Hyuk Kwon

Dept. of Periodontology, College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ere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 on the periodontium and correlations between clinical parameters and proximal tooth open contact.

Seventy-one adult patients(39 males, 32 females : 18 yrs. to 64 yrs.)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Pocket depth, gingival recession, sulcular bleeding index, plaque index, gingival index and amount of alveolar bone loss were measured on tooth surface and standard films were taken.

For statistical analysis, Student t-test and ANOVA test were used for the comparison of mean measurements and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was utilized in order to determine the association between the clinical parameters and proximal tooth open contac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Among 112 cases of interporximal tooth open contact, the incidence of individual tooth was highest between lower central incisors and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 were higher between canine and bicuspid of the maxilla and mandible more than any other sites.
2. To measure the degree of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 50μ to 100μ was most frequent(44.64%), 110μ to 150μ was 28.57%, and above 150μ was 26.79%.
3. The pocket depth, sulcular bleeding index, plaque index, gingival index and alveolar bone loss on the sites of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than control group($P < 0.01$), bu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gingival recession.
4. To compare the clinical parameters among experimental groups, pocket depth and alveolar bone loss were higher when the interproximal tooth open contact was increased($P < 0.01$, $P < 0.01$), but sulcular bleeding index, plaque index and gingival index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experimental groups.
5. In the total experimental group, correlation of clinical parameters were significant except the correlation between gingival recession and sulcular bleeding index($P < 0.05$, $P < 0.01$). ($P < 0.01$).